

〈文臣講製節目〉 解題

鄭 玉 子*

《文臣講製節目》은 《抄啓文臣講製節目》에서 「抄啓」 두 자를 생략하고 붙인 책 이름으로 抄啓文臣에 대한 세 가지 주요자료 중의 하나이다.⁽¹⁾ 이는 1781년 奎章閣에 抄啓文臣制를 設施하면서 그 教育內容을 규정한 細部指針書이다. 현재 奎章閣圖書로서 여러 책이 남아 있는데 〈奎 No. 1243〉本이 가장 자세하다. 1冊 17장으로 丁酉字의 活字本이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抄啓文臣 設置教가 제일 먼저 실려 있고 다음에 抄啓文臣 講製節目 24條項이 있는데 이것이 本節目이다. 이어서 追節目 5條項이 추가되어 있고 마지막에 文臣月講冊名次第가 合綴되어 있다. 이것을 〈奎 No. 3764〉의 五臺山藏本의 《文臣講製節目》과 비교하면 追節目 5條가 後者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活字는 같은 丁酉字이다.

《正祖實錄》과 비교하면 처음의 設置教는 《正祖實錄》卷① 正祖 5년 2월 庚申條에 실려 있고⁽²⁾ 《弘齋全書》卷③ 教 中 講製文臣設置教와 같다. 本節目은 《正祖實錄》卷① 正祖 5년 2월 辛酉條에 있고 追節目은 《正祖實錄》卷① 正祖 5년 3월 癸未條와 《正祖實錄》卷③ 正祖 18년 4월 癸亥條에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掲載되어 있다. 그런데 이 節目에는 追節目 다음에 甲寅이라는 干支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는 1794년(正祖 18)으로 위의 《正祖實錄》卷③ 正祖 18년 4월 癸亥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奎 No. 1243〉의 《文臣講製節目》은 跋文이 비록 1781년(正祖 5) 3월로 되어 있지만 甲寅년 즉 1794년 이후에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 1781년은 抄啓文臣制를 설치하고 제 1회 抄啓文臣을 뽑은 해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침서로 우선 節目을 만들고 차츰 抄啓文臣制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節目의 내용은 다듬어져 《奎章閣志》에 요약된다. 따라서 이 本節目과 追節目은 《奎章閣志》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奎章閣의 설치규정인 《奎章閣志》는 세 번에 걸쳐 完成되는 바 1776년 奎章閣이 설립된 2년후인 1778년(正祖 2)에 편찬을 시작, 1779년 初草本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抄啓文臣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고 1781년(正祖 5)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再草本의 培養條에 抄啓·試講·試製·親臨·在外·賞罰 조항이 들어가서 抄啓文臣은 奎章閣내의 존재로서 제도적 뒷받침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助教授

(1) 《抄啓文臣題名錄》李時秀 序文에 「其義則著於內閣志 其法則詳於講製節目 其人則有題名記」라 하였듯이 《奎章閣志》, 《文臣講製節目》, 《抄啓文臣題名錄》이 抄啓文臣에 대한 세가지 기초자료이다.

(2) 이 實錄에 있는 敎書는 節目에 있는 것보다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3) 活字가 丁酉字로 모두 같으므로 1781년에 일단 節目을 丁酉字로 적고 다시 1794년에 어떤 필요에 의해 더 적을 때 追節目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을 얻고 있다. 이 再草本 培養條의 내용이 바로 《文臣講製節目》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반드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1784년(正祖 8)에 마지막 정비를 본 奎章閣志 完成本은 教習條로서 抄啓文臣에 대한 규정이 抄啓・講製・親臨・賞罰로 간명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것은 《奎章閣志》再草本의 培養條와 《文臣講製節目》을 다시 정리하여 完備한 것이므로 매우 簡單明瞭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쉽게 해 주지만 抄啓文臣 設施初의 의도와 사정은 오히려 《文臣講製節目》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抄啓文臣에 대한 참모습을 이 책에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跋文을 쓴 奎章閣 提學 金鍾秀⁽⁴⁾(1728~1799)는

뿔힌 자로 하여금 스스로 증함을 알게 하고 뿔리지 못한 자는 스스로 분발케 하며 講義는 經典이나 史記로서 하고 應製는 論과 策을 주로 하되 文義를 중요시하고 句讀는 그 다음으로 중히 여기는데 이유는 致用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⁵⁾

라고 하였다. 즉 文義(글뜻) 중심의 교육은 종래 科文을 위한 詞章의 盛行으로 句讀만 중요시하던 폐단을 극복하여 經典의 참뜻을 깊이 천착·궁구하여 재음미함으로써 「修己治人」의 요체를 터득케 하려는 목적이었다. 講書는 論語·孟子·中庸·大學·詩·書·易의 七書인데 강의 순서는 大學이 앞에 나와 있고 다음은 위의 차례와 같다. 試製는 論·策·表·排律·序·記 중에서 그때 그때 적당한 장르를 선택하여 문제를 내었다. 특히 날마다 강의 할 분량을 각 經典의 특색을 살려 일정하게 排分하여 놓은 「講籤自止分排」는 정밀하고 수준높은 교과과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抄啓文臣에 대한 장려책으로 왕이 친히 抄啓文臣의 講製에 행차하여 親講親試를 행하는 親臨의 규정, 교육결과 우수하고 근면한 抄啓文臣에게 상을 주고 열등하고 태만한 抄啓文臣에겐 벌을 내리는 賞罰의 규정이 있어 「風動激勵」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 《文臣講製節目》은 1781년 抄啓文臣制 실시 당시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것이므로 초창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고 《奎章閣志》完成本の 教習條는 완비된 것이므로 이 두가지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抄啓文臣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당시의 學風과 國家的 學問장려의 방향 및 당대 지식인의 學問水準을 가늠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金鍾秀는 正祖시대의 대표적 인물로 老論에 속하며 僻派의 영수였다. 本貫은 淸風, 字는 定夫, 號는 夢梧, 眞率, 諡號는 文忠으로 正祖의 廟廷에 配享되었다. 要職을 두루 거쳐 左議政에까지 올랐다.

(5) 《文臣講製節目》跋文 「令選者知自重 而不與選者 知自奮矣 講以月 製以旬 則頻不至促 而寬不至緩矣 講用經史 製首論策 而講又右文義而左句讀 將以致用也」.